

폭스 스포츠 “WBC 한국 전력은 8위”

폭스스포츠 벤 벌랜더 해설위원이 2023년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국가별 랭킹에서 한국을 8위로 선정했다.

‘폭스스포츠’는 지난 20일 벤 벌랜더 해설위원이 선정한 WBC 참가국들의 랭킹을 공개했다.

벌랜더 해설위원은 “한국의 가장 큰 장점은 골드글러브급 내야수인 김하성과 토미 에드먼이 내야 중앙을 지킨다는 것”이라며 지난 해 내셔널리그 유격수 부문 골드글러브 최종 후보 3명에 포함 김하성과 2021년 내셔널리그 2루수 부문 골드글러브를 수상한 한국계 토미 에드먼으로 짜여진 키스톤 콤비가 한국의 최대 강점이라 소개했다.

그는 “한국팀에는 몇몇 뛰어난 투수들도 있으며 메이저리그 출신인 김광현도 포함돼 있다.”면서 “한국은



▲ 미국 애리조나주 투손 키노스포츠 콤퍼렉스에서 연습경기 후 팀 미팅을 갖고 있는 WBC 대한민국 대표팀 선수들. 사진=연합뉴스

아주 영리한 팀”이라고 덧붙였다.

벌랜더 해설위원이 선정한 랭킹 1위는 도미니카공화국이었다. 이어 2위~7위는 미국, 일본, 베네수엘라, 푸에르토리코, 멕시코, 네덜란드를 순서대로 꼽았다. 이어 한국(8위), 캐나다(9위), 쿠바(10위) 순으로 전력을 평가했다.

한국은 2006년 WBC에서 ‘4강 신화’를 연출하며 일대 파란을 일으켰고 2009년에는 일본과 결승에서 맞붙어 화제를 모았다. 비록 우승은 하지 못했지만 세계 야구를 깜짝 놀라게 만들었다. 올해 WBC에서 당시의 영광을 재현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올해 WBC는 한국 등 총 20개 팀이 참가한 가운데 오는 3월 8일부터 21일까지 일본, 대만, 미국에서 분산 개최된다.

다시 열린 ‘리디아고’ 시대



▲ LET 아랍코 사우디 레이디스 인터내셔널에서 우승 트로피를 들고 활짝 웃고 있는 리디아고. 사진=LET 홈페이지

리디아고(26·뉴질랜드·한국명 고보경)가 결혼과 함께 상승세가 꺾일 것이라 예상을 깨고 다시 전성기를 누리고 있다.

지난 22일 ‘파이낸셜뉴스’에 따르면 리디아고는 전날 발표된 주간 여자 골프 세계랭킹에서 1위를 차졌다. 지난해 11월 29일 세계랭킹 1위에 다시 오른 후 13주 연속 정상 자리를 차렸다. 올해 들어서는 8주 연속 1위다.

리디아고는 지난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 올해의 선수와 상금왕, 평균 타수 등 주요 부문을 석권한 바 있다. 그는 지난 2월 19일 끝난 레이디스유러피언투어(LET) 아랍코 사우디 레이디스 인터내셔널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세계랭킹 2위 벨리 코다(미국)와 격차를 더 벌렸다. 대회 첫날부터 꾸준하게 선두권을 지켜온 완벽한 우승이었다. 2022시즌을 마치고 지난해 12월 30일 결혼한 리디아고는 한 달여 동안 신혼여행과 겨울 훈련을 겪어 뉴질랜드에서 시간을 보낸 뒤 올해 처음으로 나선 대회에서 트로피를 들어올리는 기쁨을 누렸다.

10위 안에 이름을 올린 한국계 선수는 이민지(3위·호주), 5위 고진영(28·전인지(8위), 김효주(9위) 등이다.

리디아고는 지난 2017년 17세의 나이로 여자 골프 세계랭킹 1위를 달성하여 역대 최연소로 세계랭킹 1위 선수에 오른 바 있다.

주거니 받거니 … 서로 추켜세운 나달과 메시

‘축구의 신’ 리오넬 메시가 ‘테니스계 신사’ 라파엘 나달에게 찬사를 보냈다.

지난 22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메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나달이 자신을 ‘2023 라우레우스 올해의 남자 스포츠 선수상’ 후보로 추천한 계시물을 공유하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 ‘2023 라우레우스 올해의 남자 스포츠 선수상’ 후보에 오른 라파엘 나달(왼쪽)과 리오넬 메시. 사진=Bureau 홈페이지

메시는 “당신처럼 훌륭한 운동선수가 내게 그런 말을 해 말문이 막혔다. 할 말을 잃게 한다. 대단히 감사하다.”며 나달을 언급. “당신이 경기장에 나갈 때마다 펼치는 경쟁 방식을 보면 당신도 수상할 자격이 있다. 당신은 승자다. 그래도 아직 (수상 후보자 간) 경쟁이 치열하다. 우리 모두 라우레우스

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화답했다. 앞서 나달은 전날 메시와 나란히 ‘2023 라우레우스 월드 스포츠 어워드’ 후보에 오른 소식을 전하며 “올해는 메시가 이 상의 주인이 돼야 한다.”고 존경을 표했다.

‘스포츠의 아카데미상’으로 불리는 ‘라우레우스 월드 스포츠 어워드’는 라우레우스 월드 스포츠 아카데미가 주관하며, 매년 스포츠 각 분야에서 뛰어난 활약을 한 선수와 단체에 수여하는 상이다. 수상 후보는 전 세계 스포츠 미디어 회원 1,400여 명의 투표로 결정됐으며 올해의 남녀 선수, 팀, 성장, 복귀상 등 7개 부문을 시상할 예정이다.

김예자 공인 에이전트

미국에서 소셜 연금 뜻지 않게 중요한 것이 메디케어이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인 김예자 에이전트에 따르면 특히 파트 A는 메디케어 텍스 크레딧이 40점 이하인 경우 매월 내야 하는 프리미엄이 적지 않으므로 미리미리 메디케어 텍스 크레딧을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메디케어는 65세 생일달 3개월 전 후로 가입해야 한다.

65세 생일 달 3개월 전 후로 가입해야

• 파트 D 폐널티
파트 D 또한 마찬가지로 65세 생일달 3개월 전 후로 가입해야 한다. 가입을 지연 신청하게 되면 1개월에 1%씩 폐널티를 평생내야 한다. 김예자 에이전트는 “간혹 메디케어 상담을 받다 보면 65세에는 건강해서 약이 필요없다고 생각하고 약보험을 문의하시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5년동안(60개월) 가입지연에 따른 60%의 폐널티를 평생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연 기간의 2배 기간동안 년 10% 벌금

• 파트 A 프리미엄과 폐널티
메디케어 텍스 크레딧이 40점 이하인 경우 본인의 텍스 크레딧에 따라 매월 프리미엄을 내고 가입해야 한다. 또한 파트 A 가입을 지연하면 늦은 기간 2배의 기간동안 월 10%의 폐널티를 내야 하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 크레딧 점수 | 1점 ~ 29점 | 30점 ~ 39점 |
|---------|----------|-----------|
| 매월 프리미엄 | \$506 | \$278 |

1년에 10% 폐널티를 평생동안 지불해야

• 파트 B 프리미엄과 폐널티
파트 B 보험료는 2023년 현재 164.90달러이다. 파트 B 또한 65세 생일달 3개월 전 후로 가입해야 하는데, 파트 B 가입을 지연 신청하게 되면 1년에 10% 폐널티를 평생 내야 하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메디케어 파트 D 지연 신청 폐널티 면제

• Extra Help(처방약 보조 프로그램)
대부분의 65세 이상 시니어들은 소셜 연금이 주수입원이 되므로 Extra Help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Extra Help 자격이 되면 메디케어 파트 D지연 신청에 따른 폐널티를 면제 받을 수 있으며, 처방약 또한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Extra Help 자격

| Income & Resources | Single | Couple |
|--------------------|----------|----------|
| Monthly Income | \$1,698 | \$2,288 |
| Asset Limit | \$15,510 | \$30,950 |

<오바마케어 & 메디케어>

무료 상담 및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Covered California 공인 에이전트
KIM YEJA (김 예자)
Lic# 0F07964
T. 562.640.0643 714.773.2939
E-mail: 6400643@gmail.com